古代韓國語研究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9-3
[illegible]빌딩 501호
南 豊 鉉
137-070

서울

□□□-□□□

<2007. 3. 23. AAS 發表原稿>

韓國의 口訣과 그 讀法

南 豊 鉉 Nam, Pung-hyun

1. 序言

한국인이 漢文을 배울 때 그 原文에 吐를 달아 읽는 것을 口訣이라 한다. 吐는 韓國語의 助詞나 語尾 또는 漢字의 訓을 표시하는 形態나 그 기록을 말한다.

韓國人들은 紀元 前에 이미 漢字·漢文을 받아 들여 學習하고 使用하여 온 것으로 믿어진다. 그 과정에서 자기들이 사용하는 言語와 構造가 다른 漢文을 일정한 방법으로 受容하는 방법을 발달시켜 왔다. 이는 漢文의 構成素를 韓國의 漢字音이나 訓으로 읽어 한국어로 解釋하는 方法의 發達過程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漢字의 音과 訓을 이용하여 한국어를 表記하는 방법이 발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재 6세기 전반기의 新羅 金石文에서 漢字의 音과 訓을 이용하여 韓國語의 單語와 文章을 표기한 것들이 확인되고 있다. 이는 이 시기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漢文讀法이 발달되어 있었던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漢文에 吐를 記入하는 방법, 즉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口訣은 이보다는 후대에 발달한 것이 아닌가 한다. 현재 高麗時代까지 이어지는 口訣은 7세기 후반에 와서 발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口訣은 漢文을 한국어로 해석하여 읽는 釋讀口訣이었다. 이 釋讀口訣은 토를 口訣字로 기입하는 字吐釋讀口訣과 点과 線과 같은 부호로 기입하는 点吐釋讀口訣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釋讀口訣은 13세기 중엽까지는 일정한 懸吐樣式을 가지고 사용되다가 그 이후부터는 順讀口訣에 밀려 차츰 쇠퇴한 것으로 추정된다. 12世紀頃에는 漢文을 漢文의 語順대로 놓고 句讀에 해당하는 곳에 토를 넣어 읽는 順讀口訣이 발달하였다. 이 구결은 漢文을 주로 音讀하므로 音讀口訣이라고도 하는데 이 구결이 현대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들 口訣은 長久한 期間 사용되면서 各 時代의 言語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韓國語의 歷史를 연구하는 데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각 시대의 口訣資料를 들고 그 讀法에 대해서 설명하여 보기로 한다.

2. 字吐釋讀口訣 資料와 그 解讀

字吐釋讀口訣은 1975년 舊譯仁王經 釋讀口訣이 解讀되어 學界에 알려지면서 研究者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게 되었다. 그 후 현재까지 발굴되어 學界에 알려진 資料는 다음과 같다.

1) 釋華嚴敎分記의 釋讀口訣. 10世紀 中葉.
2) 華嚴經疏 卷35. 11世紀末 내지 12世紀初 推定.
3) 華嚴經 卷14. 12世紀 前半期 推定.
4) 合部金光明經 卷3. 13世紀初 推定.
5) 舊譯仁王經上卷 落張 5枚. 13世紀 前半期 推定.